

주5일 근무제와 여가생활의 변화

김 의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I. 주5일 근무제와 여가생활의 중요성

주5일 근무제로 표현되는 근로시간단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간 2,474시간(200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 2003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월1회 토요일휴무, 금융계의 토요일휴무 등으로 이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 부문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자기계발 기회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관련제도 개선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우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도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2001)에서는 근로의 변화,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에의 참여,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이라는 다섯 가지 점을 국민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로 들고 있는데, 이 중 근로의 변화를 제외한 네 가지가 여가생활과 직결된 내용이다. 그만큼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나

타날 부분이 여가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자의 생활중심이 직장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가정생활, 또는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이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의 방향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에서의 대응과제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주5일 근무제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가생활과 관련된 논의는 여가활동의 내용을 이루는 관광, 문화, 체육 등 각 부문별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생활자의 관점에서 개인 및 가족에 초점을 두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이들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먼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이 제도가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과제를 간략히 제안하기로 한다.

여가생활은 다양한 조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라는 한가지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하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제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하고,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외국의 예, 여가일반에 관한 연구 및 통계자료, 현대사회에서의 여가생활의 일반적 변화경향,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연구와 통계자료 등 문헌을 기초로 가정학자로서의 상상력을 더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

(1) 여가의식

20세기 들어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동 중의 하나는 노동 및 생산 중심의 생활양식에서 여가 및 소비 중심으로 생활양식이 변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에 주5일 근무제는 급격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여가의식은 세대별로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여가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대도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비율이 51.4%,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여가시간을 줄일 수 있다'가 48.0%로, 소득활동보다는 여가를 더 선호하는 비율이 그리 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주5일 근무제는 여가의 기능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킨다. 즉 직장 일을 쉬는 시간을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기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 삶의 소중한 일부이고 가치창출의 기회로 보게 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즐거움', '재미', '오락(엔터테인먼트)' 등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등의 용어가 의미하듯 노동관련 영역에도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에도 만족 31.6%, 불만족 68.4%로 불만족이 만족의 두 배 이상인 상태이다. 만족이란 기대와 현실의 일치정도에서 지각되는 감정이라고 볼 때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동반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가족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질 수 있다.

(2) 여가시간

주5일 근무제란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시간이 단축된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함께 연속적으로 늘 수 있는 휴일이 두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5일 근무제는 여가시간의 양뿐 아니라 여가시간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주5일 근무제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시간이 생리적 시간, 임금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근로시간, 즉 임금노동시간의 감소가 그대로 여가시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파트타임제 근로나 임시직 등의 경우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도 주휴가 부업 등 다른 일을 위한 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원의 휴일로 가사노동시간이 더욱 증가할 주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여성의 비중이 큰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한 운용으로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 고령자 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여성의 여가시간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부간의 여가시간불일치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여가생활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뿐만 아니라 결혼상태별, 연령별, 직종별로 주휴 2일을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개인의 선호, 또 실제와 선호 사이의 차이, 근로의 동기라든가 노동스케줄에 대한 자신의 통제 가능성 등에 따라 과잉노동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 될 경우 주휴2일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여가활동

여가시간이 여가활동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지만, 삶의 질과 관련시킬 때 중요한 것은 여가시간의 양보다는 여가시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어떠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많은 예측에서 동의되는 방향은 여가활동이 다양화되고, 동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여행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행이나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변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여행에 있어서는 가족 중심, 시간소비 체류형, 자기개발형, 체험형, 자연친화 및 건강추구형, 저비용의 계획적 여가가 증가할 것이다(한국관광연구원, 2001). 스포츠에 있어서는 건강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율의 증가와 함께 개성적이고 과격한 활동에 대한 매니아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전반적 변화와 함께 노무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성과급 체계로 나갈 기업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자들은 자기개발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소양이 증가하면서 점차 문화소비로부터 문화체험, 문화생산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은 여가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활동들이다. 주5일 근무제가 곧바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회전반적인 조직이나 운영에 따라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점차 이들 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반여가활동(semi-leisure activity)의 증가가 예상된다. DIY(Do-It-Yourself) 활동, 가족단위의 쇼핑, 정원가꾸기 등 가사와 여가활동을 겸한 활동이나 취미를 살린 부업활동 등이 시간적 여유의 증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한다고 하여 증가한 여가시간이 모두 그러한 활동에 이용되리라는

전망은 어렵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불일치가 여전히 존재한다. 선호와 참여 사이에, 또는 선호 자체에 존재하는 장애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여가장애의 중요한 한 요소인 시간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여가활동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적 활동의 경우 경제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전체로 보면 아직도 시간부족보다 경제적 부족을 여가의 불만족 이유로 드는 비율이 높고, 휴일의 경우 경제적 부족이 더욱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족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 있어서도 매주 연휴를 비용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TV 시청을 중심으로 한 매체와의 접촉을 통한 휴양활동이 여가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매체와의 접촉 시간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다. 사회적으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가능한 여가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 등 여가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많은 가족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TV 시청을 포함한 매체와의 접촉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구집단별로 증가한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도 크게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직종, 성별, 자녀연령, 장애여부,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도 변화의 양상이 다를 것이다. 전문직·관리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토요일에도 일을 하거나 개인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사무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일의 성격상 일과 휴식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적 구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서 직장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활동에 치중하거나 가족생활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일과 휴식의 경계가 가장 뚜렷하고 직업적인 활동을 위한 재투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확실하게 여가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집단이지만, 자칫 남성들만의 오락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은 집단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휴일에도 노동을 해야 할 형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0).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가사노동시간을 더욱 늘려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가 학령기를 졸업했거나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는 집안일을 하고 하루는 휴식을 하는 패턴이 가능할 것이다.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강한 경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면서 부부간 갈등이 커질 가족도 있을 수 있다.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늘어난 휴무시간의 활용문제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가족간 더욱 소원한 관계로 가는 가족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는 근로시간이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업일수나 수업시수가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의 학교수업 부담을 감소시켜 창조적인 전인발달이 가능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특유의 지극히 높은 교육열을 전제할 때 단기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휴일에도 여전히 학업부담을 가질 것이고, 전자게임이나 TV시청 이외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준비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창의적 경험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4) 여가대상

여가생활에서의 만족감은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집단효과가 크다고 볼 때 여가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가족중심', '가족단위' 또는 '가족여가'이다. 가족은 주5일 근무제의 핵심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생활들이 가족중심으로 정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조사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함께 노는 가족은 함께 존재한다”는 말과 같이 상호작용정도가 높은 가족여가활동이 많아지면 가족간의 응집력과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공동여가활동 참여는 교육적 기능이 특히 강조된다.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인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문제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가족단합과 가족협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족성원간의 관심이나 여가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며 상호 만족하는 활동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다. 더구나 여가생활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경향이 있고, 기대에 못미치는 행동에 대한 불만족도 더 커질 수 있다. 가족여행과 관련한 가족갈등은 가족여가연구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도 가족원별로 다른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가족원에게는 여가로 경험되지만 다른 가족에게는 일로 인식되는 가족활동이 많다.

주5일 근무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성가장들의 가정생활 참여를 증가시켜 남성 노동자의 생활영역간 조화를 찾게 함과 동시에 가족간 긍정적인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적,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족집단도 있다. 소득수준이 낮아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가족의 경우는 가족원간의 갈등보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다른 가족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증가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을 둔 가족,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가족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이나 여가의식, 성역할에 대한 가치가 상이한 가족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부

부간, 부모자녀간 주말생활에 대한 요구와 취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

가족 외에 직장동료가 직장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여가대상으로서 큰 비중을 갖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지역사회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웃간의 상호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 각종 커뮤니티 중심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될 것이며,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소수의 집단을 형성해서 전문가적인 경지에까지 이르는 매니아의 모임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5) 여가비용

1980년에서 2000년 동안 도시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의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 평균소비지출은 3배 가량 증가한데 비하여 여가관련 비목의 증가율은 훨씬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외식비는 크게 증가하여 1980년(1.8%)에 비해 2000년(10.8%)에는 6배 증가하였고, 교통통신비 중 개인교통비도 약3배 상승하였다. 외식과 승용차 이용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양오락비도 1980년 1.8%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6년 5.3%로 증가하였다가 IMF 이후인 1998년 4.5%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5.2%를 보이고 있다.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여가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비율이 48.2%로서 감소시키거나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경향에 더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여행, 스포츠, 외식이나 가족단위 반여가활동으로서의 쇼핑 등 비용이 수반되는 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여가관련비용의 지출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현재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가관련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상당수 가계에서 경제적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여가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이 56.8%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예상가능하다. 여가비용의 부족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한 여가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이들 가계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크질 것이다. 가족원간 가계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여가관련 지출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가할 소지도 있다.

III.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주5일 근무제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휴식이나 긴장완화, 기분전환을 가능케

넘어서 자아개발 또는 자아확장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가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조적, 과시적, 과소비적 여가생활이 아닌 창조적, 공동체적, 생산적인 여가생활을 통하여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여가생활이 다양화되고 가족여가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인구집단간 여가생활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제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여가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주체들이 이 제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가생활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사회의 전반적 여건을 제공하는 공공의 여가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는 여가생활을 개발해야 할 개인 및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정학도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여가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정부 등 공공기관의 과제

- 첫째, 여가기본법 제정, 여가행정 정비 등 여가제도를 정비한다.
- 둘째, 여가공간,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확대, 정비한다.
- 셋째, 여가산업을 육성 및 규제한다.
- 넷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한다.
- 다섯째, 여가전문가를 양성한다.

2. 가정학의 과제

- 첫째,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교육을 강화한다.
- 둘째, 여가생활개발사, 여가생활상담원과 같은 여가전문가를 양성한다.
- 셋째,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넷째, 여가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3. 개인 및 가족의 과제

- 첫째, 여가향유권을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한다.
- 둘째, 노동과 여가, 가정생활 등 생활영역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셋째, 여가생활의 레퍼토리를 넓힌다.
- 넷째, 여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넓힌다.
여섯째, 봉사활동과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한다.

■ 참고문헌

- 김외숙(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 박병호 외,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00),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 시민생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여가·문화학회(2002), 주5일 근무제 실시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통계청, 1999생활시간 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이승미(1997), 가족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8.
- 한국관광연구원(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 한국노동연구원(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문화정책방향.
- 한국소비자보호원(2001), '여가 소비문화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
- 한길리서치(2000), 주5일근무 국민여론조사결과.
- 余暇開發センター(1989), レジャー-白書'89-完全週休2日時代のレジャー-.
- Daly, K.J.(1996), *Families and Time -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Galinsky, E., S.S.Kim & J.T.Bond(2001), *Feeling Overworked: When Work Becomes Too Much*,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Jackson, E.L. & T.L. Burton(1999), *Leisure Studies -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 College: Venture Publishing.